

<2013년 12월 30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습관이 들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도 자신은 모른다.
2. 모순의 습관이 들지 않은 사람만, 나쁜 습관이 들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임을 알고 분별한다.
3. 모르는 사람은 알지 못하듯이, 그릇된 습관이 든 사람은 온전한 것을 모른다.
4. 구시대 말썽과 주관권에 습관이 들어 행하니, 그릇된 것인지도 모르고 산다. 새 시대로 나와서 구시대 습관을 버린 자만 그것이 그릇됐다는 것을 안다.
5.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그것을 악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자기 생활로 생각한다.
6. 악을 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사는 자는 그것이 악이라고 하면 반항하며 “무슨 말이나?” 혈기를 내며, 자기 습관대로 분노한다. 악한 말도 자기 습관대로 선한 말같이 한다.
7. 불의를 의인 줄 알고 습관 되어 행한다.
8. 습관을 ‘발전’이라 생각하고 더 행한다.
9. 습관에 중독되면, 하나의 생활이 된다. 고로 그것을 안 하고는 못 견딘다.
10. 어떤 도시 길을 가다가 한 여자가 길가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다. 거기서 소변을 보면 안 된다 하니, “나는 된다.” 말했다. 길가에서 소변보는 것이 습관이 들어, 화장실까지 가기 싫어서 그렇게 생활해 온 것이다. 습관이 들면, 자기는 편해서 자기 행동이 모순이라는 것을 모른다. 오히려 남이 못 하는 것을 자기만 특별히 하는 것으로 안다.
11. 습관이 되어 그것이 그릇된 것인지 모르고 하나의 생활로 보고 행하는 것이 없는지, 너의 삶을 돌아보아라.
12.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세계도 습관이 되어서 그것을 못 벗어나서 그대로 10년, 100년, 1000년씩 간다.
13. 종교 세계에서도 습관이 들면 뇌가 구시대에 짚어서 고정관념이 박혀 아예 다른 이상적인 것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구시대의 것만 좋아하며 살아간다.
14. 우상과 잡신을 섬기는 것, 점을 보는 것도 모두 습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다.

15. 자기를 보아라. 가정을 보아라. 교회를 보아라. 종교 세계를 보아라. 민족과 세계를 보아라. 모든 사람들을 보아라. ‘습관의 사망’에서 벗어난 자가 보면, 잘못된 습관이 들어 행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 자기 인생부터 잘못된 습관을 고쳐라.
16. 습관과 버릇의 주관권에서 벗어난 자가 보면, 흰옷에 흠칠한 것이 보이듯 흰히 보인다.
17. 잘못된 습관을 벗어난 자가 보고 말해 주어 고치게 하여라.
18. 그릇되게 글 쓰는 습관, 그릇되게 말하는 습관, 그릇되게 행하는 습관, 그릇되게 듣는 습관, 그릇되게 보는 습관 등 그릇된 습관은 다 고쳐라. 그래야 복을 얻게 되고, 평소에 안 보이던 좋은 것이 보이고, 차원을 높인다. 그릇된 습관을 고치는 것은 ‘휴거’에 있어 필수다.
19. 사탄은 꼭 사람이 습관이 든 대로 역사하여 유인한다. 기도하다가 조니, 내 옆에서 사탄이 졸고 있었다. 특히 단상 앞에서 기도하다가 졸지 말아라.
20. 악인은 의인을 씹는 것이 습관이 들어, 마치 개가 돼지 뼈를 씹듯 한다.
21. 악평하는 데 습관이 든 악평자들은 그 습관을 못 고치고, 그 습관 세계의 특권으로 스스로 절대 예정된 것같이 악평의 길을 가게 된다.
22. 습관은 체질이 된다.
23. 습관은 자기를 고통길로 몰고 간다.